연세대학교 사학과 합동연구실 회보

2022 봄

合研

6

合
研

6

目次

I. 소식과 일정 — *4*

II. 재학생 동향 — *8*

III. 행사와 시설 — *20*

IV. 규정과 약속 — *24*

V. 짤막한 말글 — *36*

I

소식과 일정

2021-2학기 (21. 9월 ~ 22. 2월)

『학림』 48 —— 9월

특집: 현대 한국의 학생운동과 연세대학교

김아람, 「학교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기훈, 「1970년대 전반 연세대학교 학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성훈, 「1980년대 초 신군부의 학원정책과 연세 학생운동」

이세영, 「1990년대 학생운동의 '위기'와 혁신의 모색」

장미현,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연세대 대학여성운동의 형성과 특징」

정다혜, 「2000년대 학생운동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과 운동의 다각화」

일반논문

김태홍, 「18세기 나리포창 발전과 제주로의 곡물 조달」

윤석호, 「『孟子』를 척도로 본 조선후기 公田 담론의 경세학적 층차」

박미해, 「구례 유씨가의 처가왕래와 부계화」

최보영, 「개항기(1880~1906) 원산주재 일본영사의 파견과 거류지 행정」

양정필, 「대한제국 시기 인삼업의 변화와 특징」

이지원, 「위당 정인보의 한글 인식과 한글 글쓰기」

홍성찬, 「일제하 상인, 객주의 연안 해운업 진출과 경영」

김대현, 「1950~60년대 성교육 담론의 재구성」

곽경상, 「근현대 시기 순천의 성장과 도시계획의 전환」

민후기, 「『史記』 禮書와 三家注 解題와 譯註」

第14회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 12월 10일

주제: 〈이미지로 읽는 서양의 역사〉
주최: 연세사학연구회, 연세대학교 사학과
일시: 2021. 12. 10. (금), 14:00 ~ 17:10
장소: ZOOM 비대면 회의

발표 [사회: 이혜민 (연세대)]

14:20 ~ 15:00 **발표 1 … 「아돌프 멘첼의 역사화에 나타나는 프로이센의 이미지: 시각사(visual history) 연구의 방법론적 난제에 대한 탐구」**
발표: 전진성 (부산교대), 토론: 우정아(포스텍)

15:00 ~ 15:40 **발표 2 … 「일상의 위로: 이미지로 보는 16세기 독일 루터파 공동체의 이상」**
발표: 한유나(서강대), 토론: 전한호(경희사이버대)

15:50 ~ 16:30 **발표 3 … 「인종주의적 이미지와 캐리커처: 흑인 신체의 비(非)인간화와 문화적 인종주의의 구축」**
발표: 허현(충남대), 토론: 김정욱(인천대)

16:30 ~ 17:10 **발표 4 … 「전쟁 트라우마, 감각적 고통, 반전(反戰)의 미학 – 영화 〈서부 전선 이상 없다〉(1930) –」**
발표: 최용찬(아주대), 토론: 김상민(명지대)

소식과 일정

2022-1학기 (22. 3월 ~)

주요 학사 일정

3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포탈 입력

조교 배정

4월

학부 중간시험

학위논문 예비심사

학부 답사

5월

대학원 신입학 서류·면접 전형

6월

제15회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학부 기말시험

학위논문 본심사

7월

자격시험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제출

8월

대학원생 교류회 및 합동연구실 총회

학위논문 공개발표회 (한국사 전공)

학위수여식

대학원 개설과목

한국사

도현철 선생님, 한국중세사론2

이기훈 선생님, 한국근대사료연구2

조태섭 선생님, 고고학과자연과학

최윤오 선생님, 한국중세의경제제도3

하문식 선생님, 선사고고학방법과이론

하일식 선생님, 한국고대사의제문제

홍정완 선생님, 한국현대사상사연구

동양사

박경석 선생님, 동아시아의역사인식

방광석 선생님, 일본사상사연구

차혜원 선생님, 중국근세사의제문제

서양사

설혜심 선생님, 미시사

이재원 선생님, 유럽연합의제문제

이혜민 선생님, 역사와상징

학과장

이재원 선생님
2021. 9. 1. ~ 2023. 8. 31.

학과 사무실 조교

책임조교

홍수연, 한국근대사 통합과정 (학사A)
이영조, 한국근대사 석사과정 (회계)
이창민, 서양사 석사과정 (학사B)

사무조교

금수현, 한국고대사 석사과정

전공 주임

한국사 · 하일식 선생님
동양사 · 박경석 선생님
서양사 · 이재원 선생님

연구년(안식년)

임성모 선생님 (2021-2, **2022-1학기**)
전수연 선생님 (**2022-1**, 2022-2학기)

합동연구실 총무

이소연, 한국고대사 석사과정 (큰방)
남혜민, 한국고대사 박사과정 (작은방)

※ **책임조교 업무분장 (대학원 관련만 대략)**
* **학사A**: 입시, 종합시험, 연구계획서, 논문심사, 휴복학 등
* **학사B**: 수업·교과, 강사, 졸업요건, 교양조교 장학, 학부수업 시험감독 등
* **회계**: 각종 예산·기금, 인건비, 남운·위당·서여장학, 법인카드, 주차권·근조기 등

II

재학생 동향

졸업과 입학

졸업 —— 2022년 2월

석사

전장원, 「프랑스 제3공화국 초 지리학계와 ‘문명화 사명’
– 초기 트랜스사하라 철도 계획을 중심으로 –」

이정용, 「시베리아 한인사회의 사회주의 수용과 이르쿠츠크 콤그룹 연구」

장영민, 「19세기 향촌사회 변동에 따른 마을 운영과 結契」

히토미 아오이(HITOMI AOI), 「19세기 산림 이용 확대와 산송의 증가」

양강(YANG KANG), 「설장수의 인적 네트워크와 『직해소학』의 편찬」

고낙일, 「1950년대 공군 정훈과 교양지 『코메트』의 성격」

박사

김민서, 『1950~60년대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유행과 기층 의료문화의 형성
– 홍콩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

석영달, 『실패한 개혁, 혹은 개혁의 첫걸음: 19세기 영국 해군개혁의 성과와 한계』

노상균, 『한말 일제초 상공업 자본가의 분화와 식산흥업론』

홍해뜸, 『조선후기 목민서 편찬과 수령정치론 연구』

입학 —— 2022년 3월

한국사

양　강, 중세사 I 박사과정
김도현, 고고학 석사과정
김　필, 고고학 석사과정
송태호, 고고학 석사과정
금수현, 고대사 석사과정
김홍준, 근대사 석사과정
이경민, 근대사 석사과정
이지은, 근대사 석사과정

동양사

김진우, 일본근현대사 석사과정
배범수, 일본근현대사 석사과정
LIU QI, 중국근현대사 석사과정

서양사

이태원, 서양사 박사과정
김윤아, 서양사 석사과정
서봄이, 서양사 석사과정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1년 9월 ~ 2022년 2월

고고학

졸업과 입학

입학 · 〈석사〉 **김도현 김필 송태호**

전공생 현황 (2022-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서인선 정봉구 최경용 전소영 김소영 권수진 홍성수**

수업학기 · **이상규 이창원**

석사 논문학기 · **김길수 이건웅 이태호 이민규**

수업학기 · **최민정 여수임 송정섭 정시형 이서영 김도현 김필 송태호**

학석 연계과정 · /

학술 활동

김명진·김은정·정봉구, 「전곡리 구석기 유적 절대연대측정의 현황 및 제언」
『한국구석기학보』 44, 한국구석기학회 (2021. 12.)

그 밖의 소식

보고서 간행: 『정선 매둔 동굴유적(2)』 (2021,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정선 매둔 동굴유적(1)』은 2019년에 간행)

한국고대사

졸업과 입학

〈석사〉 **금수현** · 입학

(2022-1 기준) 전공생 현황

이유진 남혜민 이일규 백길남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이소연 금수현 · 수업학기

김나연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전공생 세미나: 논문 구상·아이디어 발제 및 토론 (2019. 3. ~, 격월)

일본어 강독 스터디 (2022. 1. ~ 2.)

학술 활동

남혜민, 「신라 마립간기의 지방 통제와 上守吏의 기원」
『동방학지』 19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9.)

______, 「지증왕대 喪服法의 제정 목적과 지배 질서의 예제화」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영남문화의 원류, 신라”> (2021. 12. 28.)

백길남, 「百濟의 王·侯號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그 활용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104, 한국고대사학회 (2021. 12.)

그 밖의 소식

안정준(박사졸업, 서울시립대 교수), 『반전의 한국사』 (2022, 웅진지식하우스) 출간

이일규, <울진 성류굴 각석문 문화재 지정 가치 연구 용역> (2021. 8. ~ 12, 울진군·한국국학진흥원) 연구보조

한국중세사 I

졸업과 입학

졸업 · 〈석사〉 **양강**

입학 · 〈박사〉 **양강**

전공생 현황 *(2022-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최민규 이상민**

수업학기 · **양강**(YANG KANG)

석사 논문학기 · **허혜주**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 /

한국중세사 II

졸업과 입학

〈박사〉 **홍해뜸** 〈석사〉 **장영민 히토미아오이** · 졸업

(2022-1 기준) 전공생 현황

조인희 김태홍 정진혁 · 박사 논문학기

이재빈 단백혜(DUAN BAIHUI) · 수업학기

강진주 박혜림 · 석사 논문학기

김영윤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학술 활동

김태홍, 「18세기 나리포창 발전과 제주로의 곡물 조달」
『학림』 48, 연세사학연구회 (2021. 9.)

정진혁, 「조선 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처분」
<제64회 전국역사학대회 한국사연구회 "말세의 사상과 사회적 대응"> (2021. 10. 30.)

조인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정명(征明)'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75, 한일관계사학회 (2022. 2.)

그 밖의 소식

홍해뜸(박사졸업), 강진다산실학연구원 부임 (2022. 3.)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1년 9월 ~ 2022년 2월 (이어서)

한국근대사

졸업과 입학

졸업 · 〈박사〉 **노상균** 〈석사〉 **이정용**

입학 · 〈석사〉 **김홍준 이경민 이지은**

전공생 현황 (2022-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정경민 김호걸 이정윤 김나라**

수업학기 · **장윤이 석지훈 홍수연**

석사 논문학기 · **이규연 김예림 이기선**

수업학기 · **김해인 이영조 박란 하태욱 LU YEJIA 김홍준 이경민 이지은**

학석 연계과정 · /

세미나 운영

한국근현대사 세미나 (2021. 1. ~)

일본어 강독 수업 (2021. 2. ~)

학술 활동

석지훈, 「1930년대 조선악(朝鮮樂)의 근대적 기획과 보급
– 음반사 ‘문예부장(文藝部長)’ 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94, 한국사연구회 (2021. 9.)

김해인, 「근대 한국에서의 미국 독립 운동사 이해」
김홍준, 「1920~30년대 제주도와 재대판제주인 사회 –사회와 운동에서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이영조, 「일제하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홍수연, 「1920년대 물산장려회 내부 세력들의 이념적 편차」
<2021 상해외국어대학교-연세대학교 학술교류회> (2021. 12. 26.)

한국현대사

졸업과 입학

〈석사〉 **고낙일** · 졸업

(2022-1 기준) 전공생 현황

김은정 김대현 이봉규 김세림 이준희 정다혜 김지훈 박은영 · 박사 논문학기

정윤영 · 수업학기

송용욱 박좌진 천오성 · 석사 논문학기

김보람 성건호 김재형 서준호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박사학위논문준비 세미나 (박사생, 매달)

한국근현대사 세미나 (2021. 1. ~)

학술 활동

김대현, 「1950~60년대 성교육 담론의 재구성」

정다혜, 「2000년대 학생운동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과 운동의 다각화
- 연세대학교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
『학림』 48, 연세사학연학회 (2021. 9.)

김세림, 「1980년대 광산사고 후 강원도 민영탄좌의 '화해' 과정과 탄광 노동자의 선택」
『사학연구』 144, 한국사학회 (2021. 12.)

중국근세사

졸업과 입학

없음

전공생 현황 (2022-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박찬근**
수업학기 · **함승연**
석사 논문학기 · **이영기**
수업학기 · **김진송**
학석 연계과정 · **박소현**

학술 활동

박찬근,「청조 도광 연간의 은전병용론에 대해」
『명청사연구』56, 명청사학회 (2021. 10.)

함승연,「丁戊奇荒 시기의 부녀자 매매 현상과 부녀자 구조
— 1878~1879년 河南省 부녀자 代贖 활동을 중심으로」
<명청사학회 12월 월례발표회> (2021. 12. 21.)

중국근현대사

졸업과 입학

〈박사〉 **김민서** · 졸업

〈석사〉 *LIU QI* · 입학

(2022-1 기준) **전공생 현황**

지관순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심민보 **양청청***(YANG QINGQING)* **방수미** **양가림***(JIALIN LIANG)* · 석사 논문학기

이신동*(LI XINTONG)* **주사영***(ZHOU SHIYING)* **조준희** *LIU QI*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일본근현대사

졸업과 입학

입학 · 〈석사〉 **김진우 배범수**

전공생 현황 (2022-1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윤정환**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장재경 김보람 손효지 손명락**

수업학기 · **전혜현 김진우 배범수**

학석 연계과정 · /

서양사

졸업과 입학

〈박사〉 **석영달** · 졸업

〈박사〉 **이태원** 〈석사〉 **김윤아 서봄이** · 입학

(2022-1 기준) 전공생 현황

/ · 박사 논문학기

이태원 · 수업학기

전유한 고혜진 박서현 전장원 · 석사 논문학기

구지윤 이창민 박한결 정호원 김윤아 서봄이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학술 활동

석영달, 「서평: 메타 '애거서 크리스티 읽기'
설혜심, 『애거서 크리스티 읽기: 역사가가 찾은 16가지 단서』 (휴머니스트, 2021)」
『영국연구』 46, 영국사학회 (2021. 12.)

주요 행사 소개

신년하례식

1월. 대개 첫째 주. 교내 알렌관에서.
선생님들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등이 모이는 자리.
다과를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듣는 자리.
한 해 학과와 동문의 동향, 졸업생과 신입생을 소개.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6월과 12월.
『학림』을 발간하는 연세사학연구회의 정기 발표회.
사학과 홈페이지 메뉴에서, 학회 · 학술사업 > 연세사학연구회
(https://history.yonsei.ac.kr/histroy/05_hakrim/hakrim_intro.do) 혹은,
JAMS의 연세사학연구회 페이지 (https://hakrim.jams.or.kr) 참조.

논문 공개발표회 (한국사전공)

8월과 2월.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할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사 전공생이 학위논문을 발표하는 자리.
발표 후 선생님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받고, 동료 대학원생과도 질의응답.
한국사전공의 석·박사과정생이 발표하나, 발표회 참관은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

사학인의 밤

2학기 중. 대개 10월.

대학원생 행사는 아니나, 사학과 선생님들과 동문 및 학부생들이 모이는 자리.

주로 사회 각계의 동문 졸업생을 초대하여, 해당 진로에 관심있는 학부생을 연결해주는 행사.

이로 인해 '각계'의 하나로서 대학원생이 참여하기도 함.

사학과 학부 학생회가 주관.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아래 합동연구실 총회와 함께 개최.

2~4인의 발표자가 논문 습작 혹은 수업 보고서 발표 및 토론.

자세한 내용은 회보 V장 참고.

합동연구실 총회

8월과 2월.

합동연구실 이용자들의 정기 회의.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의 관련 내용(본 책자 30쪽)을 참고.

행사와 시설

주요 시설 소개

사학과 사무실

주소 · 홈페이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519호

https://history.yonsei.ac.kr

연락처

02-2123-2370

yhisto@yonsei.ac.kr

근무 시간

평일 10:00 ~ 12:00, 13:30 ~ 17:00 (단, 방학에는 15:00까지)

사학과 대학원 세미나실

위치

외솔관 627-1호

대관 방법

사학과 홈페이지(https://history.yonsei.ac.kr) 접속

바로가기 버튼 중 **외솔관 627-1호 세미나실 대관** 클릭

대학원 수업 및 이미 신청되어 있는 행사 날짜·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

겹치지 않으면 과 사무실에 방문 혹은 연락하여 신청

(아쉽게도, 전산상으로 자동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학과 합동연구실

위치

큰　방: 외솔관 517호

작은방: 외솔관 518호

이용에 당부드리는 점

합연실 내규와 세칙을 잘 읽어주세요.

합연실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경우, 잠시일지라도 반드시 도어락을 걸어주세요.

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경우, 불과 냉·난방을 꼭 끄고,

[※중요] **쓰레기통을 복도 끝 합연실 큰방 문 앞으로 꺼내 놓아 주세요.**

합연실 프린터로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내역을 기록해 주세요.

합연실 도서는 공용이므로, 잡지 등을 이용하신 후에는 제자리에 두어 주세요.

상임석 신청 방법

매 학기 방학마다, 합연실 총무가 상임석 신청 공지를 띄웁니다.

공지 확인은, 사학과 홈페이지(https://history.yonsei.ac.kr) 접속

바로가기 버튼 중 **합동연구실 상임석 신청** 클릭

〈합동연구실 이용〉 게시판의 신청 공지 확인하여 댓글로 신청

(게시글을 읽기 위해서는, 연세포탈의 ID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IV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1995년 10월 제정
2021년 9월 개정 (11차)

1. 전공분류

전공을 한국사전공, 동양사전공, 서양사전공으로 나눈다.

2. 입시

가. 입학은 전공별로 구별하여 전형한다. 전공분류가 애매한 경우 중점분야에 준하여 입학한다.

나. 석사과정은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제간의 연구나 새로운 학문분야의 모색을 위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입학정원은 전공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전공 내에서도 현재 대학원 재학생 및 입시생의 분포를 감안하여 전공영역별로 입학생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시전형

1) 서류심사

제출서류 : ① 학위논문 ② 기타 연구성과물 ③ 어학 및 특수분야 연수증명 혹은 성적표

심사기준 : [석사]

학업계획서(*1) 70점 / 대학성적(*2) 70점 / 연구활동 및 외국어연수실적 (*3) 60점 – 합계 200점

*1 : 주제 선정에 나타난 안목을 연구 상황에 비춰 평가

*2 : ① 전공과목의 이수성적 ② 강독 · 특강 · 연습과목 이수성적 우선

*3 : 전공연구에 필요한 도구류의 준비정도

[박사]

학업계획서 및 석사학위논문(*1) 70점 / 대학 및 대학원 성적(*2) 70점 / 연구성과, 학회활동 및 어학·특수강좌 이수경력 60점 – 합계 200점

*1 : 학업계획서 30점, 석사학위논문 40점

*2 : 대학성적 30점, 대학원성적 40점

2) 구술시험

전공에 대한 지식 20점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20점 /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 / 어학능력(*1) 20점 / 연구분야 및 여건의 특수성(*2) 20점 - 합계 100점

*1 : 전공분야 사료 및 외국어 독해능력

*2 : 본과 교수진용과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연구분야와 여건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정책적 고려

3. 과정이수

가. 석사과정

1)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18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 학부과정에서 역사전공이 아닌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부과목을 보충 수강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 연계과목 중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학부에 개설된 대학원 연계과목 중 학부시절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다.

4) 학부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학원 연계과목을 학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에 의해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소정의 학점이수가 완료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기왕의 이수과목과 성적이 연구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도교수가 판단할 경우 연구지도과정을 통하여 보충수강을 지도할 수 있다. 이 역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6) 한 학기 이수과목은 보충수강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박사과정

1) 학위취득에 필요한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중 최소 36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 석사과정에서 30학점을 초과 이수하였거나 재입학 등으로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삭제>(2015년 8월 개정)

4) 박사과정생은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발표실적이 2편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이어서)

1995년 10월 제정
2021년 9월 개정 (11차)

3. 과정이수 (이어서)

다. 석·박사 통합과정

1)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최소 33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 과정이수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박사과정(3-나)과 동일하다.

4. 전공영역 및 지도교수

가. 입학시 전공은 졸업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학한 학생은 1학기 내에 전공영역을 명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그 변경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전공영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사전공 : ① 한국고대사 ② 한국중세사1(統一新羅·高麗) ③ 한국중세사2(朝鮮) ④ 한국근현대사 ⑤ 한국사회경제사 ⑥ 한국정치사 ⑦ 한국사상사 ⑧ 대외관계사

2) 동양사전공 : ① 중국고중세사 ② 중국근세사 ③ 중국근현대사 ④ 일본고중세사 ⑤ 일본근현대사 ⑥ 중앙아시아사 ⑦ 인도·동남아시아사 ⑧ 서아시아사

3) 서양사전공 : ① 고대희랍 및 로마사 ② 중세유럽사 ③ 근대영국사 ④ 근대프랑스사 ⑤ 근대독일사 ⑥ 미국사 ⑦ 동유럽·러시아사 ⑧ 남유럽사 ⑨ 북유럽사

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점취득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다.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1외국어(영어) : **(2021년 9월 개정)**

한국사 : TOEFL(IBT 60**점 이상**), TOEIC 610**점 이상**, NEW TEPS 230**점 이상**

동양사 : TOEFL(IBT 71**점 이상**), TOEIC 640**점 이상**, NEW TEPS 241**점 이상**

서양사 : TOEFL(IBT 79**점 이상**), TOEIC 685**점 이상**, NEW TEPS 258**점 이상**

2) 제2외국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학과 자체 출제) 외부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일본어는 新JLPT N2 이상(JPT는 540점 이상), 중국어는 新HSK 5급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3) 외국인 석·박사과정생은 제 1외국어로서 영어 대신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박사과정의 제 2외국어는 출신지역의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한문포함)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

라. 종합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사전공

석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박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2) 동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 중국사학사 및 동양학의 역사와 구조 ② 주전공영역 ③ 전공인접영역

박사과정 : ① 중국사연구의 최근동향 ② 주전공영역 일반 ③ 전공인접영역

3) 서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 역사의 이론 ② 서양사 일반 ③ 전공영역 일반

박사과정 : ① 최근의 역사이론과 연구방법 ② 전공영역 ③ 전공인접영역

4) 종합시험의 출제 및 사정은 전공단위의 교수 전체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이어서)

1995년 10월 제정
2021년 9월 개정 (11차)

6. 논문작성 및 심사

가.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곧바로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논문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지도불능’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임교수는 다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점이수,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다.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학점이수 및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라.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 퇴직 등)로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할 때, 주임교수는 학생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를 다시 배정할 수 있다.

마. 학위논문의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 학생은 당해 학기 초(3월, 9월)까지 초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학원에 논문제출계획서를 제출한다.

1) 한국사 전공 학생이 예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심 이전학기 말(6월, 12월 말)에 공개발표를 해야만 한다.

2)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 최종학기(석사 8학기, 박사 14학기, 통합 16학기)에는 예심을 청구할 수 없다.

바. 논문제출서가 제출되면 주임교수는 전공분야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사. 논문이 제출되면 예심이전에 전공단위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 공개발표시에는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학과 교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 예심 후 주임교수는 논문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학과내 교수와 학생은 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준용원칙

가. 본 내규는 2003년 9월 현재 대학원 학칙 및 제 내규에 근거한다.

나. 대학원 학칙 및 내규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본 내규의 정신에 근거하여 준용한다.

다. 미비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2019년 8월 제정
2020년 2월 개정
2021년 8월 개정 (2차)
2022년 2월 개정 (3차)

개괄

합동연구실은 외솔관 517호(이하 '큰방')와 518호(이하 '작은방')를 아울러 말한다.

연구실의 도서와 설비는 학부·대학원 전공생 등 사학과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연구실을 이용할 때에는 함께 있는 다른 이용자를 배려해야 한다.

총무와 총회

큰방과 작은방에 각각 총무를 한 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큰방 총무는 합동연구실의 시설과 재정을 관리하며, 매 학기 시작 전에 총회를 연다.

작은방 총무는 작은방을 관리하며, 큰방 총무를 보조한다.

총무는 연구실 이용과 상임석 배정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회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회계 보고, 상임석 배정, 차기 총무 선출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상임석과 공용석

합동연구실의 좌석은 상임석과 공용석으로 구분한다.

상임석은 내규에 따라 배정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공용석은 상임석이 아닌 모든 좌석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정 공용석을 한 사람이 전용하여 다른 연구실 이용자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상임석 신청과 배정, 이용

상임석 신청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2) 매 학기 총회에 앞서 신청하고, 총회에서 참석해야 상임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3) 휴학을 할 학기에는 상임석을 신청해 이용할 수 없다.

상임석 배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상임석 배정의 석사수업학기생·석사논문학기생·박사수업학기생·박사논문학기생 비율은, 그 학기 신청자의 비율에 맞춘다.

(2) 단, 석사 혹은 박사학기생 신청자 합의 한쪽이, 다른 쪽 신청자 합의 절반 이하일 경우, 해당 과정생은 수업학기생과 논문학기생을 나누지 않고 합쳐 상임석 배정의 비율을 산정한다. ※주1

(3) 상임석은 입학 후 4개 학기마다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4회째 신청하여 이용할 수는 있지만 최하 순위로 배정한다.

(4) 4개 학기 내에 상임석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고학기생일수록 배정에 우선순위가 있다.

(5) 우선순위는 석사수업학기생·석사논문학기생·박사수업학기생·박사논문학기생 안에서 각기 따로 구분하여 매긴다.
단, 본 항의 (2)에 따라 수업학기와 논문학기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정의 신청자를 합쳐 우선순위를 매긴다.
본 항의 (3)에 따른 최하 순위자도 이와 같이 따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6)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 순위를 다시 구분해야 할 경우, 고학기생을 우선한다.

(7)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1~6학기 박사수업학기생, 7학기 이후는 박사논문학기생으로 간주한다. (2022. 2. 28. 개정)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이어서)

2019년 8월 제정
2020년 2월 개정
2021년 8월 개정 (2차)
2022년 2월 개정 (3차)

상임석 신청과 배정, 이용 (이어서)

상임석 신청·배정·이용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1) 다음 신청자는 배정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0순위')가 있다.

*가. 과 사무실 **책임조교** / 나. 과 사무실 **사무조교***

(2) 다음 이용자는 상임석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한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가. 과 사무실 **책임조교** / 나. 큰방 총무*

(3) 신청자가 총회에 불참하고 대리인에 위임할 경우, 우선순위를 하나 내린다.

(4) 상임석 이용자가 휴학하면 그가 지정한 사람 혹은 차순위자가 이용한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공용석으로 둔다. 이때 이용횟수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학기 1/3 초과시: 휴학한 前이용자가 이용한 횟수로 계산하고,
새 이용자의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나. 학기 1/3 이하시: 前이용자의 이용 횟수로 계산하지 않고,
새 이용자의 횟수로 계산한다.

상임석 이용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1) 배정받은 상임석을 적극 이용해야 하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차순위자에 상임석을 양도해야 한다.

(2)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한다.

(3) 합동연구실 청소에 일정하게 참여해야 한다.

사물함 신청과 배정, 이용

사물함은 매 학기 상임석 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한다.

상임석을 이용하지 않는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이 신청해 배정받을 수 있다.

사물함 이용자는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한다.

기타

내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에서 정한다.

내규의 개정 등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세칙의 제·개정 등은 총회 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총회 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다.

※ 주1

가령,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수업학기:박사논문학기의 신청자가 12:6:5:3이라면,
석사학기 신청자 총합(=18)의 절반(=9)보다 박사학기 신청자 총합(=8)이 낮으므로,
상임석 배정의 비율은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학기 = 12:6:8로 계산한다.
상임석이 전체 22석이라면, 실제 좌석 수는 10.15:5.07:6.76, 반올림하면 10:5:7.

만약,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수업학기:박사논문학기의 신청자가 12:6:6:4라면,
석사학기 신청자 총합(=18)의 절반(=9)보다 박사학기 신청자 총합(=10)이 낮지 않으므로,
상임석 배정 비율은 그대로 석사수업:석사논문:박사수업:박사논문 = 12:6:6:4로 계산한다.
상임석이 전체 22석이라면, 실제 좌석 수는 9.42:4.71:4.71:3.14, 반올림하면 9:5:5:3.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세칙

2019년 8월 제정
2021년 8월 개정
2022년 2월 개정 (2차)

총무의 혜택

큰방 총무는 상임석을 사용하더라도, 회비 납부와 청소 참여의 의무를 면제한다.

큰방 총무에게는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한다. 재원은 회비 등에서 충당한다. ※주4

(2021. 8. 신설)

상임석 좌석 수

큰방, 작은방을 아울러 합동연구실 상임석의 수는 22석으로 한다. ※주2

상임석 수의 변동은 이후 지양한다.

공용석 지정

공용석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큰방의 개인 자리 3석을 공용석으로 지정한다.

상임석 신청자의 총회 참석

상임석 신청자가 무단으로 총회에 결석·지각할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배정되지 못한 잔여 상임석은 다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회비 납부 의무

합동연구실 상임석 이용자의 한 학기 회비는 25,000원이다. ※주3

사물함 이용자의 한 학기 회비는 5,000원이다.

연구실 청소 의무

합동연구실 상임석 이용자는 한 학기에 적어도 청소 3회 및 대청소에 참여해야 한다.

우편 배송지를 연구실 주소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2021. 8. 신설)*

누구든 개인 우편물(특히, 학술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배송지를 연구실 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일회성 배송에 한한다.

(1) 상임석을 이용하는 학기에 상임석 이용자가 자신의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

(2) 사전에 (배송지 주소에 따라 큰방 혹은 작은방) 총무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의 경우로 배송된 개인 우편물은 연구실에 보관하지 않으며, 상시 처분한다.

연구실로 배송된 자신의 우편물은 최대한 빠르게 수령해야 한다.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생의 상임석 및 사물함 배정에 관하여 *(2022. 2. 신설)*

학석연계 학부생이 상임석을 신청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최하 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사물함의 신청과 배정도 이에 준한다.

상임석·사물함을 배정받은 학부생의 의무와 권리는 대학원생 이용자와 동일하다.

※ 주2 – 2019-2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 20석에서 22석으로 늘림.

– 내규 개정에 따라 박사논문학기생이 상임석을 신청하여 배정할 수 있게 명시했기 때문.

※ 주3 – 2019-2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

– 연구실 기자재 증가 등으로 유지비가 늘었던 점을 감안.

※ 주4 – 2021-1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큰방 총무의 혜택에 수고비를 추가.

V

짤막한 말글

자료 소개: 태안사 사적『혜철국사비명』과『광자대사비명』

이 일 규 (박사 7, 한국고대사)

전라남도 곡성의 태안사(泰安寺) 혹은 대안사(大安寺)는 신라 통일기의 고승인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惠哲, 785~861)이 동리산문(桐裡山門)을 연 절이다. 이후 고려 때에는 혜철의 법손(法孫)인 광자대사(廣慈大師) 윤다(允多, 864~945)가 사세를 한 층 더 키웠고, 조선시기에는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孝寧大君)이 머물며 연을 맺은 사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태안사의 역사나 기원, 여러 사정 등은『태안사지(泰安寺誌)』에 실려 전해진다. 이 책은 본래 연도 미상의『동리산태안사사적(桐裡山泰安寺事蹟)』(1920년대)과『태안사사적(泰安寺事蹟)』(1943), 그리고『불탄계자원금수납부(佛誕禊自願金收納簿)』(1930) 등의 태안사 책자를 묶어 1983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것이다. 그동안 태안사나 동리산문의 고승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태안사지』를 참고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태안사에 대한 기록은 많이 실전되어 버리고, 혜철이나 윤다의 석비와 같은 금석문 자료도 현재로서는 온전히 남아 있지 못하다. 그래서『태안사지』가 전하는 많은 사실은 태안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태안사지』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산견된다.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필사된 광자대사비의 비문은 한 행이 누락되고 또 많은 오류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최성렬, 2001).

더 큰 문제는 고려 무신 집권기의 최우(崔瑀)와 태안사의 관계를 전하는 내용이다.『태안사지』에 실린 여러 글에서는 최우가 태안사에서 법회를 열었다거나, 절을 중건했다는 언급이 종종 나타난다. 가령 적인선사비를 새롭게 만들어 세울 즈음인 1927년에 작성된「동리산기실(桐裏山紀實)」에는, "高宗 15년 봄, 임금이 동산(桐山)이 삼한의 선원지(禪源地)이고 또 조성(祖聖)이 남긴 뜻을 따르기 위함에서, 유사(有司)를 감독하여 공사를 일으켜 절을 수리하였고, 상국(相國) 최(崔)가 크게 베풀어 선법회(禪法會)를 열고 이를 축하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태안사지』의「편사(片史)」항목에는 "고려 고종 15년 경에 최우가 왕의 뜻을 받아 중건하였다"라고 하여,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를 보면 고려 고종 때 최우의 도움으로 사세가 다시 한 번 크게 흥했던 사실과 함께, 태안사가 이 시기에 담선법회(談禪法會)를 개최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서술은 모두 착오로 비롯된 것이다(최성렬, 2002).

무신 집권기의 문신인 이규보(李奎報)가 쓴「대안사담선방(大安寺談禪榜)」이라는 글이『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권25에 전한다. 바로 여기에『태안사지』가 최우와 태안사의 관계로 '착각'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대안사담선방」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 이로 말미암아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이 명철한 조사[哲師]의 비요(祕要)에 따라 종문(宗門)을 높이 믿어서, 이에 오백선우(五百禪宇)를 크게 열어 심법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한 뒤에 북병(北兵)이 스스로 물러가 다시는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선(禪)이 세상에 이익을 주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

지금 **봉성(鳳城) 밖 곡령(鵠嶺)의 북쪽에 대안사(大安寺)라는 절**이 있어 영수(靈秀)를 저축하였으니, 실로 우리나라[三韓]의 근저(根柢)인 것이다. 본래『지론(智論)』을 선양하여 군사를 물리치고 재앙을 압승할 처소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되어서 동우(棟宇)가 기울고 무너졌으니 자못 선왕이 창제(創制)한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때문에 상(上)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다시 창건하게 하였으니, 제작의 웅장함과 호사스러움은 이에서 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절을 세우는 것은 법을 넓히기 위한 것인데, 절은 세워졌으나 법연(法筵)이 오히려 적막하니, 또한 의리상 그대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상국이 사전(私錢)으로 그 경비를 충당하여 금년 4월 15일부터 대회(大會)를 열었다. 그 나머지 비공요천(鼻孔遼天)의 무리들도 모두 참석하여 설법을 듣고 서쪽에서 온 불법의 뜻을 밝히는데 늠름한 그 기봉은 범접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간혹 불안(佛眼)과 어록(語錄)을 깨치고 심요(心要)를 밝히기도 하였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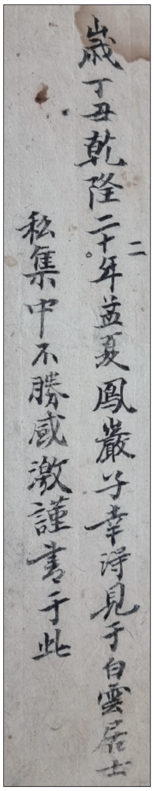
이처럼『태안사지』「동리산기실」에서의 표현은 실상 이「대안사담선방」을 축약하고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위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내용이 전하는 대안사는 곡성 태안사의 옛 이름이 아니다. 곧 ‘봉성(=개성) 밖 곡령(=송악산) 북쪽’의 대안사로, 고려 수도 부근 천마산(天磨山)에 있던 동명의 다른 대안사이다. 그러나『태안사지』등에서는 이를 곡성 태안사의 내용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나아가『태안사지』에는 이「대안사담선방」의 전문을 실어놓기까지 했다.

선행 연구에서 추적한 바로는, 이러한 ‘호도(糊塗)’의 시초는 1779년 태안사의「대웅전중창기(大雄殿重刱記)」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글에서는 ‘춘경(春卿)’ 곧 이규보의 말이라면서 태조(太祖)가 동산(桐山)에서 크게 선회(禪會)를 베풀었다는 언급을 하는데, 다름 아닌 위의「대안사담선방」의 내용을 참조했던 셈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시, 소개할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같이 꺼내보겠다. 나는 지난해 겨울 12월에 태안사를 방문해, 주지 각초 스님의 도움을 받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 소장 책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혜철국사비명(慧撤國師碑銘)』**이라는 책자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언급하겠지만 표제에서 말하기도 하듯이 적인선사비의 비문을 필사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다른 종이와 필체로, 앞서 이규보의「대안사담선방」을 ‘혜철국사태안사담선방(慧徹國師泰安寺談禪榜)’이라는 제목을 달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를 옮긴 이가 말미에 짤막한 메모를 남겨두었는데 다음과 같다.

“해는 정축년 건륭 22년(1757) 초여름, 봉암자가 요행히 백운거사의 사집(私集) 속에서 볼 수 있었는데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 여기에 쓴다.”
(歲丁丑乾隆二十(二)年孟夏鳳巖子幸㝵見于白雲居士私集中不勝咸[感]激謹書于此)



▲ 봉암의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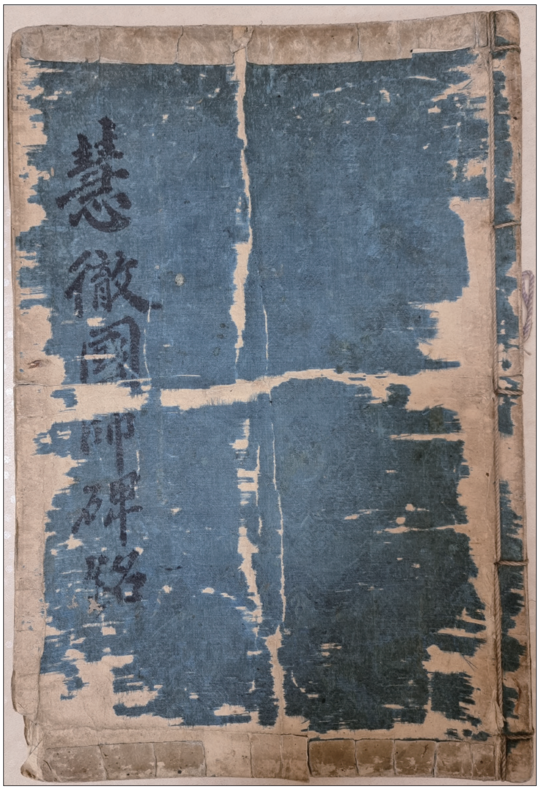
여기의 ‘봉암자’는 곡성 출생으로 화엄사에서 승려가 된 봉암(鳳巖) 낙현(樂賢, ? ~1794)으로 추정되는데, 『태안사지』의 다른 기록에도 두어 군데 보이는 등 태안사와는 깊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를 보면 봉암이 백운거사(白雲居士), 곧 이규보의 문집에서 「대안사담선방」을 보고는 『혜철국사비명』 책자의 뒤에 그대로 베껴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옮겼다는 점을 보면, 봉암이 「대안사담선방」의 개성 대안사를 그만 곡성 대안사로 착각했던 것 같다. 또 담선방의 초두에 ‘명철한 조사[哲師]’ 운운한 부분도 ‘혜철[哲] 선사[師]’로 오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태안사가 고려 고종 때 중창되었다거나, 최우가 여기에서 담선법회를 개최했다는 등 이규보의 글을 참고한 『태안사지』에서의 많은 잘못된 서술은 바로 이 때의 착오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호도’의 시초로 지적한 「대웅전중창기」보다 22년 앞의 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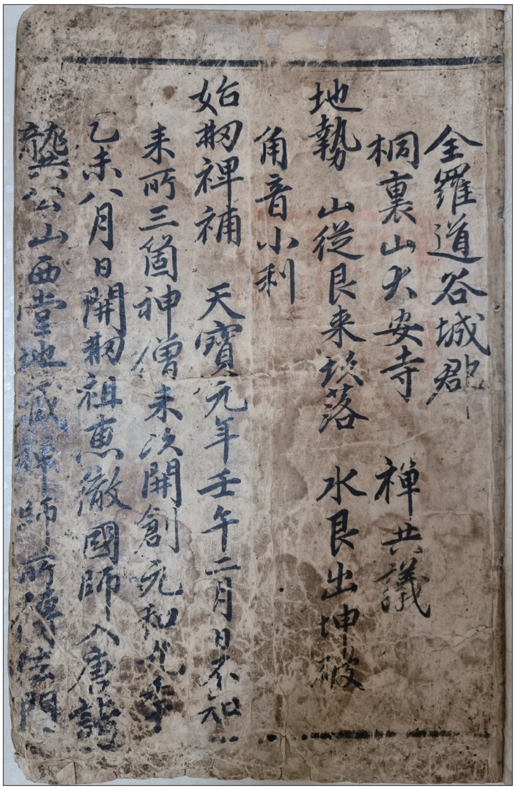
「대웅전중창기」를 보면, 그 시주자의 명단에 ‘봉암 낙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이처럼 중창기를 쓴 묵암(默庵, 1717~1790)이 「대안사담선방」의 내용을 보고 잘못된 사실을 적을 수 있었던 까닭도, 아마 봉암의 오해가 낳은 ‘감격스러운’ 발견이 태안사 및 그와 관계를 맺던 여러 승려 사이에서 제법 공유되고 또 전파되었던 데에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혜철국사비명』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봉암의 메모로 추정하자면, 이 책자의 작성 연대가 늦어도 1757년보다는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첫 장에는 “전라도 곡성군 동리산 대안사 선공의(禪共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며, 이후로는 ‘지세(地勢)’ ‘시창비보(始刱裨補)’ ‘불상간각(佛像間閣)’ 등의 항목을 두어가며 태안사의 사정을 적고 있다. ‘불상간각’의 마지막 즈음에는 당(幢)·탑(塔)·비(碑)의 현황을 쓰는데, 비의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로 적인선사비의 비문이 담겨 있다. 비문 뒤로는 ‘복전수법석(福田數法席)’이라는 항목으로, 전답과 노비 등을 포함한 태안사의 재산 내역이 이어진다. 그 다음은 앞서 언급했듯이 봉암이 추가적으로 덧붙인 ‘혜철국사태안사담선방’과 메모이다.

기실 이들 내용은 『태안사지』, 특히 『동리산태안사사적』에 여기저기 나누어져 실려 있는 것들이다. 가령 ‘지세’는 『태안사지』에서 ‘고지세(古地勢)’로, ‘시창비보’는 『태안사지』 ‘편사’의 첫



▲『혜철국사비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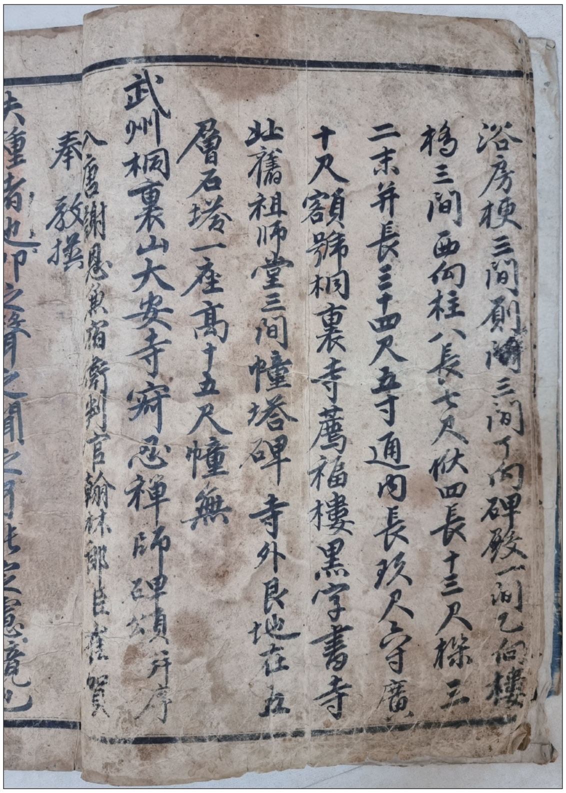
▲『혜철국사비명』 첫 장

부분에 쓰이고 있고, '불상간각'과 '복전수법석'은 『태안사지』에서는 광자대사 윤다 때의 사정을 전한다고 생각하여 '당시불상간각(當時佛像間閣)' '광자시대중(廣慈時大衆)'이라는 이름을 달고 거의 그대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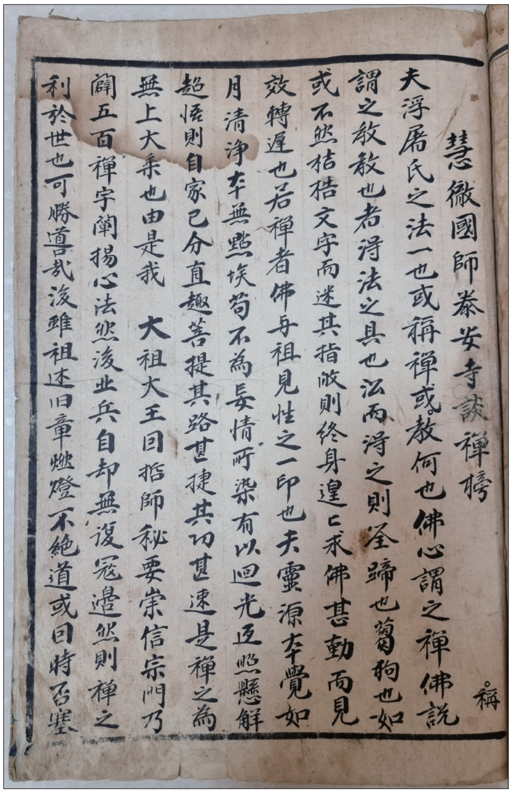
이를 보면 『태안사지』(『동리산태안사사적』)의 편자가 이 『혜철국사비명』을 참고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태안사지』에서 굳이 이규보의 「대안사담선방」을 수록했던 것도, 편자가 직접 『동국이상국집』에서 찾아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혜철국사비명』에 봉암이 덧붙였던 것을 무비판적으로 가져왔던 까닭이다. 그래서 『혜철국사비명』에 실린 「대안사담선방」의 오식과 누락이 그대로 『태안사지』에도 이어지고 있다.

『태안사지』에 실린 적인선사비의 비문도 마찬가지다. 『태안사지』에서의 필사본은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의 비문 사본과 약간 달라서, 그 글자에 이체자가 많고 오식과 누락도 종종 확인된다. 또, 반대로 『조선금석총람』에는 잘못되어 있는 글자가 『태안사지』의 것에서는 바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혜철국사비명』이 싣고 있는 비문을 대체로 똑같이 옮겨온 탓이다.

그런데 『혜철국사비명』이 갖는 중요성은 단지 태안사 사적 『태안사지』의 형성과 편집 과정을 알



▲ 『혜철국사비명』 적인선사비 비문 시작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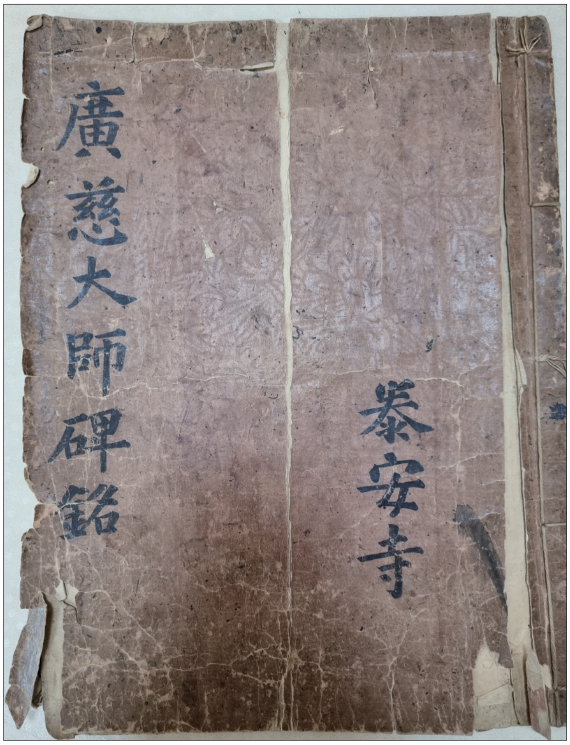


▲ 『혜철국사비명』 '혜철국사태안사담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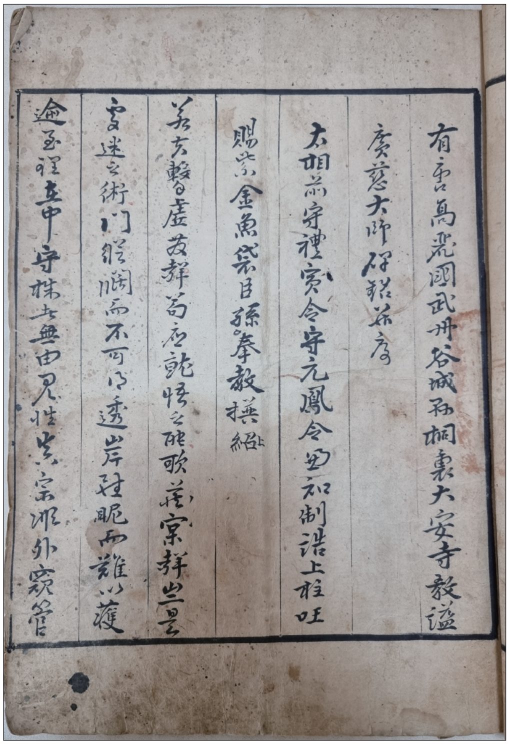
려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혜철국사비명』의 항목 구성, 즉 '불상간각'과 당·탑·비, '복전수법석' 등의 순서로 이어진 기록은, 지금 순천 송광사(松廣寺)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572호인 송광사 고려 고문서, 곧 「수선사형지안(修禪社形止案)」과 매우 닮은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태안사지』 속에 분포한 기록을 모으면, 「수선사형지안」과 유사한 이른바 「대안사형지안(大安寺形止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있었다(노명호 외, 2003 ; 최연식, 2013). 곧 『태안사지』에는 '당시불상간각', 비문, '광자시대중' 등으로 여기저기 나누어 수록했지만, 이를 순서에 맞게 조합하면 「수선사형지안」과 같은 하나의 문서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혜철국사비명』은 「대안사형지안」의 존재에 대한 기존의 추정을 한 층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자료인 셈이다.

나아가 만일 『혜철국사비명』이 「대안사형지안」을 옮겨 적은 것이라면, 이는 「수선사형지안」에 대한 새로운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지금 「수선사형지안」 문서는 결손되어 서두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불상간각' 항목의 내용이 가장 앞에 나타나고, 그마저도 앞부분은 한 행 이상이 떨어져 나간 상태다. 그런데 『혜철국사비명』을 참고하면, 앞서 보았듯이 '불상간각' 이전에 '지세'와 '시창비보'라는 항목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두가 결락된 「수선사형지안」에도 원래 이들



▲『광자대사비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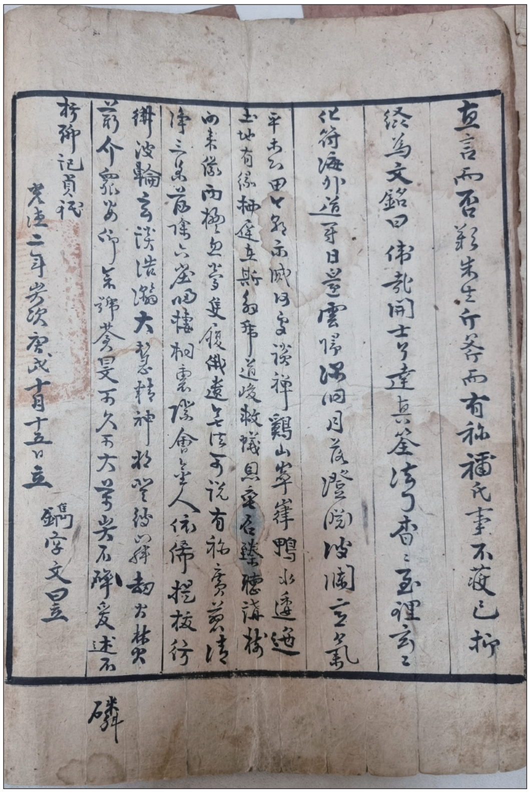
▲『광자대사비명』 첫 장

항목이 있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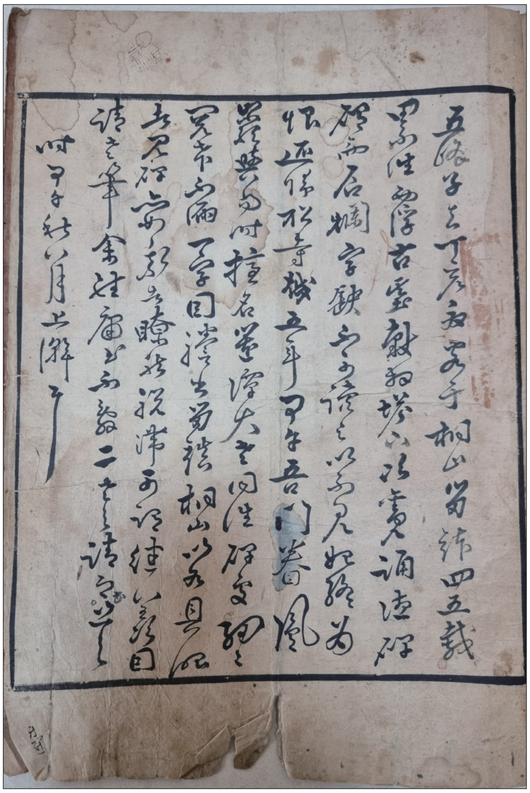
『삼국유사』 제5 의해(義解)의 보양이목(寶壤梨木)에는, 1230년에 5도 안찰사가 각 도 사원의 '시창연월(始創年月)'과 '형지(形止)'를 심검(審撿)하여 적(籍)을 만들었다는 언급이 있다. 『혜철국사비명』의 '시창비보' 항목에서도 태안사의 창건 연월과 개창조(開刱祖) 혜철에 대해 적고 있는데, 이는 곧 보양이목 기사에서의 '시창연월'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선사형지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서두에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까닭이다.

다음으로, 『혜철국사비명』과 함께 확인한 자료는 **『광자대사비명(廣慈大師碑銘)』**이라는 책자다. 그 내용은 앞서 태안서의 형지안 문서로 추정할 수 있는 『혜철국사비명』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광자대사비의 비문만을 행서 내지 초서로 필사한 것이다.

광자비의 실물은 지금 조각나 불완전한 형태로 있지만, 파손되기 이전의 탁본이 있고(『장서각 소장탁본자료집 Ⅰ』)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과 같은 데에도 비문이 실려 있다. 그래서 『태안사지』에 실린 광자비 비문과 교감 작업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최성렬, 2000), 그 결과 『태안사지』의 비문에는 특정 한 행이 아예 누락되어 있는 등의 큰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



▲『광자대사비명』 비문 마지막 부분



▲『광자대사비명』 이른바 '등초기' 부분

『광자대사비명』에 실린 비문을 『태안사지』의 것과 비교해보면, 『태안사지』에서 누락하고 있는 바로 같은 행이 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앞서 『혜철국사비명』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태안사지』의 편자는 이 『광자대사비명』에서 광자비의 비문을 그대로 옮겼던 것이다.

또 『광자대사비명』에는 비문을 모두 옮긴 다음 장에, "오봉자(五峰子)…"로 시작되는 기록이 바로 덧붙여지고 있다. 이는 송광사 승려인 오봉(五峰) 은현(隱玄, ? ~?)이 석비에서 비문을 베껴 옮겼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태안사지』에서도 「등초기(謄抄記)」라고 하여 싣고 있다. 다만 원본으로 생각되는 이 『광자대사비명』에서는 특별히 제목이 없는 것을 보아, 「등초기」라는 제목은 『태안사지』 편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등초기」에 따르면, 오봉이 석비의 판독 작업을 한 것은 1774년이 된다. 『광자대사비명』이라는 책자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판독의 대상은 적인·광자 두 비가 아니라 광자비에만 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곧 「등초기」 앞에 오고 있는 광자대사비 비문이 바로 그 판독의 결과물인 셈이니, 이 『광자대사비명』 책자의 작성 연대 역시 1774년으로 생각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한편, 이 때 오봉과 함께 같이 판독을 했던 다른 두 승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앞서 『혜철국사비명』에서도 등장했던 봉암 낙현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렇게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태안사의 두 사적인 『혜철국사비명』과 『광자대사비명』을 간략히 살폈다. 이들은 늦어도 18세기 중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동리산문 연구에 주로 활용되었던 『태안사지』(『동리산태안사사적』)는, 태안사의 신라와 고려 때 일을 전함에 대체로 이 두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혜철국사비명』은, 기존 연구에서 추측되어 오던 「대안사형지안」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해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향후 「수선사형지안」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자료의 성격과 의의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최성렬, 2000 「太安寺 廣慈大師碑 校勘」 『불교문화연구』 7

최성렬, 2001 「『泰安寺誌』 所載 廣慈大師碑銘의 問題點」 『한국불교학』 29

최성렬, 2002 「大安寺談禪牓과 泰安寺」 『철학논총』 28, 새한철학회

노명호 외, 2003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上)』,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연식, 2013 「高麗 寺院形止案의 復元과 禪宗寺院의 공간 구성 검토」 『불교연구』 38

附記

『혜철국사비명』과 『광자대사비명』은 조선시기의 것인데, 함께 확인했던 다른 책자인 『적인선사비송병서(寂忍禪師碑頌幷序)』는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여기 실린 비문은 1928년에 새로 만든 적인선사비 신비(新碑)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비문을 쓴 뒤로는 신비를 세우는 과정과 비용, 기부금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태안사지』에 실린 사정보다 훨씬 자세하다.

가령 여기의 「적인조사공덕비흥복사실원말록(寂忍祖師碑興復事實原末錄)」에는 신비의 몸돌이 채석된 후 어떻게 태안사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적고 있는데, 이는 『태안사지』에는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다. 또 신비 건립에 따른 지출도 『태안사지』 「동리산기실」 등에는 2,427원가량의 합계만을 전하고 있으나, 여기의 「지응부(支應簿)」에는 항목별로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이를 살피면, 2,427원 중에는 비석 자체에 750원, 그 운반에 231원 33전이 들었고, 비문 서사에 108원 87전, 새기는 데에 384원 70전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탑수선책(塔修繕責)'의 비용으로 316원 18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를 보면 2,427원이 모두 신비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며, 신비를 세울 때 적인선사의 승탑인 '조륜청정탑(照輪淸淨塔, 보물 제273호)'을 함께 수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적인선사비송병서』 표지

연세대학교 사학과 합동연구실 회보

合硏 6

2022년 5월 초판 1쇄

인 쇄 **북토리** BOOKTORY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30 한국학술정보(주) 북토리사업부

080-855-8285

편집·디자인 博多

제작·발행 **사학과 합동연구실**

함께, 갈다